

정동영 무소속 연대설에 민주 '요동'

4·29 재보선을 앞두고 전주 덕진에 출마하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경우, 전주를 비롯 다섯 곳의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단 한 석도 못 얻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천에서 배제된 전주 덕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이 최근 신 전 장관을 지지할 경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이 신 전 장관을 측면 지원하면 완산갑의 승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혼미한 양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전 장관과 민주당 주류의 갈등은 크게 증폭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주류 측은 "무소속연대 추진은 해당 행위"라며 발끈했다.

鄭, 신전 前 국정원장 등 파트너 영입 추진 민주 "복당한다더니... 표리부동 전형" 비난

정 전 장관이 신 전 장관을 측면 지원하면 완산갑의 승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혼미한 양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전 장관과 민주당 주류의 갈등은 크게 증폭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주류 측은 "무소속연대 추진은 해당 행위"라며 발끈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결론적으로는 복당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당에 비수를 꽂는 걸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이자 배반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정 전 장관 측에서도 '무소속 연대'가 자칫 역풍을 맞아 향후 정치적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신전 전 국정원장과의 무소속 연대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3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무소속 후보를 찾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후보와 연대하는 형식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의 관심과 표심에 의해 무소속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장관의 무소속 연대가 성사되고 동반 당선될 경우, 민주당 복당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전북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앞전 모드에 돌입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다 선거구(화정3·4동, 풍암동)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고경애(49·여) 예비후보와 민노당 류정수(40)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는 서구 기초의원 선거는 양 정당이 총력을 펼칠 태세다. /임동욱 기자 tuim@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태국 방콕 시내에서 13일 무장한 군인들이 탁신 치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시위진압대는 자동화기를 동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연합뉴스

태국軍 시위대에 발포 70여명 부상

시위대, 가스통 쏘고 격렬 저항... 신년축제 아수라장

태국 수도 방콕 일대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13일 군경과 시위대가 시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양측에서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이날부터 15일까지 이어질 태국의 전통 신년축제 '송글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국 경찰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탁신 치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단체인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이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 수 천명은 정 부청사를 주 농성장으로 삼아 시내 주요도로의 길목 23곳에서

버스 등으로 차단벽을 쌓고 군·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방콕시내에서 북쪽지방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진입로 입구의 단행 교차로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트럭을 인근 연립주택 마당에 주차해놓고 요리용 LP가스 통을 쌓아놓은 뒤 군이 강제 진입에 나서면 이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앞서 이곳에서는 새벽 4시께(현지

시간) 군과 시위대의 첫 충돌이 벌어졌다. 중무장한 태국군 400여명은 교차로를 차단 중이던 수백명의 UDD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공중에서 M16 자동소총을 수백발 발사하면서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도 이에 맞서 진압군을 향해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면서 격렬히 저항했으나 1시간만에 교차로를 내주고 인근 골목길 등으로 흩어졌다. 방콕보건소는 이번 작전으로 최소 74명이 부상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갔으나 서너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목포지법·지검 승격 조만간 결론"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법사위·사진)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법사위에 상정돼 조만간 목포지법·목포지검 승격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산안·영암·함평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해남지원'을 각각 '목포지방법원 장흥지원, 해남지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전남도는 유일하게 도청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없어 서남권 주민들이 광주까지 왕래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 "감세안 유보해야"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사진)은 13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감세의 귀착 효과 90% 이상이 상위층과 대기업에 몰려있다"며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가 예측한 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2010년에 예정된 13조1천억원의 감세안은 유보 또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 중소기업에 58%의 감세효과가 돌아간다고 했지만, 이는 중산층을 과세소득 8천 800만원 이하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이고 중산층

을 OECD의 정의로 풀이한다면 상위층만 감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오 前 의원, 순천대 특강 취소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13일 순천대 특강을 돌연 취소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오늘 오후 총학생회 초청으로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미래의 한국'이란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었으나, 특강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날 오전 특강 취소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특강사실이 사전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담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귀국 후 이 전 의원의 외부특강 일정이 잡혔던 것은 이날이 처음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박지경기자 jkpark@

협력할 많이 사인 학원인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를 한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www.hanbit.com.kr

한빛 고시학원

7급 핵심정리 및 문제풀이 가장 5인1법

출산 행 언 네

출산 준비, 출산 방법, 출산 비용 등에 대한 최신 정보와 유용한 팁을 제공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최신판 7·9급 공무원 시험 대비.

한빛 고시학원

합격률 높이기 위한 최신판 7·9급 공무원 시험 대비.

남성경력력

자신감을 잃은 30-40대 남성을 위한 남성 경력재활 프로그램.

한빛 고시학원

합격률 높이기 위한 최신판 7·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연락처: TEL: 010-4344-1000